

한국전력 입찰 비리 후폭풍 거세다

입찰 탈락 6개업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제기 불법낙찰 10년간 133건 달해 줄소송 가능성도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 입찰 비리 사건의 후폭풍(後暴風)이 거세게 불고 있다. 검찰이 한전의 입찰 시스템 조작 비리를 공식적으로 발표한 뒤 불법적으로 이뤄진 '전기 공사'에 대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봇물타지듯 쏟아지는 실정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가처분 신청 뿐 아니라 탈락한 업체들의 본안 소송 등 줄소송도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형편이다.

한전의 부실한 입찰 시스템 관리와 파견업체 직원들의 시스템 조작 등 불법 행위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비리라는 지적이 적지 않은데다, 불법 입찰로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탈락하는 등 피해를 입은 전기업체들의 불이익도 모른척 할 수 없어 한전 측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광주지법은 12일 S전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 등 한전 입찰 시스템 비리와 관련, 전기업체 6곳이 낸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지난달 23일부터 한전을 상대로 "1순위 업체가 한전의 부실한 입찰 시스템 관리로 협력업체로 선정됐다면 기존 입찰 절차를 전면 무효화하는 등 선의의 탈락업체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로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내고 있는 실정이다.

검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로 확인된 불법 낙찰 공사가 지난 10년 간 전국에서 133건(83개 전기공사업체)에 이르는데다, 한전이 이들 업체 중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업체가 34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관련 소송은 훨씬

늘어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한전이 진행하는 연간 입찰 건수의 경우 자체 구매 관련 입찰(연간 2만여건)을 제외한 단가·총가 등 전기 공사만 하더라도 1만9000여건(1조8000억)이 넘는 만큼 검찰 수사가 진행될수록 불법 낙찰 현황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도 이같은 점을 감안, 불법 입찰 비리로 한전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업체들의 가처분 신청 및 본안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 2일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업체는 "한전이 제대로 입찰 시스템을 관리했다면 우리 업체가 협력업체로 선정됐을 것"이라며 "한 번 입찰로 2년간 영업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데 비리로 탈락했다면 가만있을 수 있겠냐"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밝혔다. 다른 업체들도 "입찰비리로 탈락한 업체라면 억울해서라도 소송을 하지 않겠냐", "입찰 비리에 연루된 혐의가 드러난 상황에서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았다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관련 공사 중단 등 파장이 만만찮다.

한전측은 가처분신청·본안 소송 등 입찰 비리가 불려올 만만찮은 후폭풍 등을 고려해 법무팀을 중심으로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진행중으로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 선의의 피해업체들을 위해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재입찰 등을 실시할 수도, 그렇다고 불법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관련 업체가 공사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내버려 두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내 최대 공기업의 부실한 시스템 관리도 한몫을 했다는 책임론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범죄가 확정되기까지 비리 업체에 대한 계약 해지는 물론, 재계약 절차를 진행하기도 힘들지 않겠냐"면서 "법무팀을 중심으로 협력업체 선정 및 전기공사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광주천변 '짹짹한 민물고기' 시중유통?

하수처리장 인근 변사 50대 차량에 붓어 500마리

분뇨 하수처리장 주변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잡은 물고기가 대량으로 유통돼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기준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시민 정서에 반하는 민물고기가 시장으로 유통됐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았다.

12일 새벽 3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유덕동 하수처리장 인근 광주천변에서 최초(59)씨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씨의 차량 안에서는 20cm가량의 붓어 500여마리가 실려 있었다. 경찰은 평소 고혈압 치료를 받아오던 최씨가 고기를 차에 옮겨 신던 중 무리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최씨는 분뇨가 정화된 따뜻한 물과 찌꺼기가 일부 흘러나와 평소에도 붓어 등 민물고기가 몰려드는 광주하수처리장 주변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

남광주 시장 등에 팔면서 생계를 꾸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씨가 평소 고기잡이를 한 지점은 어로행위는 가능한 곳으로 고사됐지만 그물로 어류를 포획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최씨가 고기잡이를 한 지점의 수질은 지난해에는 3급수(BOD 4.1mg/L) 수준이었으나 올들어 2급수(BOD 2.3mg/L)로 개선됐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보건 기준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시민 정서에 감안해 당국의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이 필요했던 상황"이라며 "2~3급수 수준인 하수처리장 주변에서 잡힌 물고기가 대량 유통됐다는 점에서 찌뽕함을 줄 수 있지만 오염된 물고기가 시중 유통됐다고 단정하긴 힘들다"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벤츠 여검사' 무죄 확정...대법 "대가성 아니다"

대법원이 12일 '벤츠 여검사 사건'의 장본인인 이모(40)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벤츠 승용차 등 이씨가 받은 금품도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은 결과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내연남으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최초(53) 변호사로부터 특정 사건의 수사를 담당 검사에게 재촉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2011년 구속 기소됐다. 이씨는 2007년 최 변호사와 내연 관계를 가진 뒤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이는 2010년의 사건 청탁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벤츠 승용차는 '사랑의 정표'라고 항변했다.

/연합뉴스

1심은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라며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품은 내연 관계에 따른 경제적 지원의 일환"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최 변호사에 대한 호의로 담당 검사에게 재촉 전화를 걸었다고 판단했다. 벤츠 승용차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정표로 이씨가 요구해 받은 것으로 봤다.

특히 이씨가 청탁을 받은 것은 2010년 9월, 신용카드를 받은 것은 그해 4월,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것은 2009년 4월로 각각 시간적 간격이 있어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씨가 받은 청탁과 금품 사이에 대가 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유죄로 유지했다.



“뇌졸중·당뇨 예방해야죠” 12일 광주시 북구 두암보건지소 직원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뇌졸중과 당뇨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GS칼텍스, 우이산호 기름유출 어업피해 보상 마무리

5개 지역 대책위에 107억 지급 최종 합의

지난해 1월 발생한 여수산단 GS칼텍스 원유부두 우이산호 유류유출 사고로 인한 어업피해 보상이 사고 발생 1년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GS칼텍스는 우이산호 사고 피해 지역인 여수, 여수 신덕마을, 광양, 남해, 하동 등 5개 어업피해대책위원회에 총 107억 4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어업피해 보상을 최종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GS칼텍스는 이 가운데 여수 신덕마을을 제외한 4개 대책위에는 지난달 17일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으며, 조만간 신덕마을에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개별 접수된 어업피해 421건과 비수산(水産)피해(수박·요식업 등) 342건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책위별 보상금액(피해건수)은 여수 42억원(3107건), 여수 신덕마을 11억원(421건), 광양(692건) 5억3000만원, 남해

(738건) 38억5000만원, 하동(645건) 10억6000만원이다.

어업피해 종류별로는 ▲여수 어선어업 964건, 맨손·나잠어업 1811건, 마을어업 42건, 기타 290건 ▲여수 신덕마을 어선어업 197건, 맨손·나잠어업 148건, 마을어업 1건, 기타 6건 ▲광양 어선어업 273건, 맨손·나잠어업 419건 등이다.

GS칼텍스 관계자는 "개별적으로 접수된 어업피해와 비수산피해에 대해서도 협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월 31일 오전 9시 30분께 원유 200만 배럴을 싣고 여수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접근 중이던 싱가포르 국적 16만4000t급 원유선 우이산호가 부두시설을 들이받으면서 승유관 3개가 파손돼 원유와 나프타 등 900만ℓ가 바다로 유출됐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장성 불태산 나흘만에 또 산불

0.5ha 태우고 진화

12일 오후 2시20분께 장성군 진원면 고산저수지 인근 불태산에서 나흘 만에 또다시 산불이 발생했다.

전남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이날 헬기 4대와 차량 5대, 소방인력 220명을 투입해 산불진화 작업에 나서 오후 4시30분께 불길을 잡았다. 불은 산리 약 0.5ha를 태웠

지만 지난 8일 화재로 인해 불에 탄 5ha에 포함돼 큰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날 산불의 원인은 4일전 발생했던 화재로 암반지대에 남아있던 뒷불(불씨)이 되살아난 것으로 추정된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산불정리를 마치고 오는 14일까지 불진화 작업인 뒷불정리를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전원” 주택지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투자가치 좋음
- 매매가 - 1억 6400만원 (일시불 조정가)

주인직매 H. 010-3605-5000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17평 - 20층 중 10층
- 창가, 코너, 전망좋은, 무등산 방향
- 전체 올수리, 즉시 입주
- 매매 - 5200만원
- 29평 - 20층 중 10층
- 양동 하천방향, 내부 깨끗
- 2015년 5월 입주
- 매매 - 7200만원

오피스텔 매매

문의 H. 010-3605-5000

신안동 제일오피스텔

- 18평 - 14층 중 13층
- 창가, 코너, 전망좋은, 전대 방향
- 즉시 입주, 내부 깨끗
- 매매 - 3500만원

광전파크 “빌라”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5층 중 2층 34평
- 정남향, 2013년 신축
- 방 3, 화장실 2, 거실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2억원 정도
- 매매 - 1억 740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경매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교육비 / 임정활동비
-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 자본금 - 1억원 이상
-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